

방치된 빈집 '귀농인 집'으로

완주군, 2000만원 지원 수리·리모델링 추진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

완주군이 빈집을 수리·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운영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귀농인 유치를 위해 마을협의회가 지역 내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머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선정 마을에 대해 빈집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예비 귀농



인이 완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농촌의 방치된 빈집 중 쓸 만한 빈집 5곳을 선정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며, 향후 5년 내에 2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대상 마을과 빈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완주군은 올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행복멘토단 운영 귀농귀촌 인턴십, 동아리 지원, 재능기부활동 등 다양한 도시민 유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머물면서 지역 체험 및 농업창업 과정을 한 번에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 귀농·귀촌인은 2012년에 154세대에서 2013년 530세대, 2014년 898세대, 2015년 911세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축제심의위, '진안 홍삼축제' 명칭 확정

10월 12일~16일까지 마이산 일원서 개최

진안군 홍삼축제의 명칭이 올해부터 '진안 홍삼축제'로 변경됐다. 군에 따르면 24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표 축제 명칭 변경과 함께 군민의 날과 통합하여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 마인드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진안군은 201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삼축제를 개최해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독특한 지역 문화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의 고장 진안을 관광브랜드화하기 위해 '진안 홍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이번 '진안 홍삼축제'는 당초 3일에서 5일간으로 축제기간을 연장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이산 일원에서 홍삼한방산업과 진안문화 콘텐츠를 주테마로한 다양한 체험, 공연, 경연, 전시, 부대행사를 짜임새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진안 홍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진안=우태민 기자

황정수 군수, 전국동계체전 참가 무주군 선수단 격려

현재 금5·은6·동6 획득

황정수 군수는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을 찾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무주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바이애슬론을 비롯한 스키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북바이애슬론연맹과 전북스키협회, 전북체육회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김호엽 감독이 이끄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과 무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선수와 지도자 등 백여 명이 명을 만난 황 군수는 "추운 날씨, 낯선 환경,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뽐내 전국에 무주를 알리고 전북



황정수 군수가 전국동계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무주군 바이애슬론 선수단을 찾아 격려하며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 동계스포츠의 자존심을 무주가 살리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

군에 따르면 제97회 전북동계체육대회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학교급식 '지역산식재료' 공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6년 학교급식에는 지자체 25억9천7백만원, 교육청 21억8천1백만원으



"지역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황의탁 무주안성 발전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무주군 안성면 발전 장학재단은 25일 안성면 천치부페가 등에서 관계자 등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의탁 이사장(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농촌 인구감소로 학생들이 줄어 농촌학교가 폐교되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미래 꿈나무를 바르게 키우고 육성하는데 미려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성면에 기탁된 기금을 하

나로 모았고 이제는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경비를 절감해서 한 푼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지금까지 저는 많은 분들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받은 만큼 갚으면서 살겠다"면서 "물집이 풍족해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백지위에 안성면 발전과 기부문화의 역사를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 쓰겠다"면서 "우리 함께 힘과 용기를 주신 이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함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 개최

89개교 1만2746명 지역산식재료 공급

올해 완주군 89개교 12,746명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얼굴 있는 먹물거리가 공급된다. 군에 따르면,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대귀 위원장(완주군 부군수)을 비롯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학교급식 '지역산식재료' 공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6년 학교급식에는 지자체 25억9천7백만원, 교육청 21억8천1백만원으

로 총 47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유·초·중·고 89개교 12,746명의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얼굴 있는 먹물거리가 공급되어 자라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물론 지역산식재료 공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당초 무농약 쌀만 공급하던 것을 유·초등생에게는 유기농 쌀을 공급하고, 중·고등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가 14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완주군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순수 군비만으로 사업유치원 7개교 584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기자

로컬푸드리츠

장수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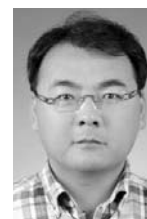
장수군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구축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올해 3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LPG산업협회와 함께 계남면 중방마을 44세대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 세대가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구는 개별탱크를 설치해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구축사업은 장수군과 한국LPG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해 추진되며 기존 LPG용기 충전에 비해 월 연료비가 38%이상 절감돼 연료비 개선효과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공무원노조 백원준 위원장 취임

무주군 공무원노동조합 백원준 위원장(제3대 위원장)으로 지난 25일 취임했다.



백원준 위원장(46세·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에 우선 귀 기울이고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재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선에 선만큼 조직사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삶에 대한 열정,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정성이 결국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붓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 주천면사무소 신청사 준공

진안군 주천면사무소(면장 배완기)는 25일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2시 신청사 광장에서 개최한 준공식에는 이항로 군수, 이항기 군의회 의장, 박민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 및 지역 주민들 300여명이 참석해 신청사 준공을 축하했다. 구 청사는 지난 1988년 10월 연면적 563㎡, 사무실 1동의 건물로 지난해 말까지 사용했다. 신축 후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공간이 비좁아 각종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변변한 공간조차 없어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사 건립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진안군은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11월 공사착공 후 1년여 만에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수군,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25일 제3차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17년 및 18년 국가예산 사업과 중앙 공모사업 대응에 관해 부서장의 보고와 쟁점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부처 예산편성 시기에 앞서 군의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하여 적극 대응코자 마련하였으며, '지역권 M-FOOD 기지 조성사업', '가항매립장 순환이용 사업' 등 79개 국비 3,591억원의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발굴 사업에 대한 부서별 목표설정과 부처 대응에 대한 전략수립으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역산업과
063-430-2951